

# 중부형민가와 비교를 통한 제천지역 민가의 평면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Folk Houses' Plans compared with Central Region's ones in Che-chun City

최영식\* / Choi, Young-Sik

김희규\*\* / Kim, Hee-Kyu

## Abstract

After 18th century in Korea, a tendency of the traditional folk houses shows not only the typical types but also the cultural areas in terms of each regional part. The existing folk houses are selected in order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 of the plans with those of the central region in Korea. Moreover this region has been a collided zone of culture and military from the old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because the district of Che-chun is located between the southern part and the central one. So its culture and housing plan showed as unique forms, so-called the Culture of Frontier and Composite.

Consequent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rasp the characteristic of those plans and to compare the plan types with ones of the central region. For the attainment of the above goal, this investigated study is prosecuted by means of the existing 6-folk houses in Che-chun city.

키워드 : 중부형 민가, 혼합문화, 변방문화, 뜰자 평면, 평면구성, 안채, 바깥채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 민가의 평면형태는 지역에 따라 대체로 일반화된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주거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민가는 수백년 동안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형성하였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통민가가 지역적 환경 속에서 적응해 온 방법의 인식은 생활 속에서 건축을 평가하고 창조해 나가려는 시도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한국 전통민가의 형성배경이 되는 환경적 요인은 인문사회환경 요인과 자연환경 요인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인문사회 환경적으로 살펴 보면, 제천(堤川) 지역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의 본 고장으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이었고, 4세기 무렵 백제영토가 되었다. 그 후 고구려땅이 되어 내토군이라 불렀고 청풍은 따로 사열이현이라 불렀다. 늦어도 5세기 말에 이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었으며 조선 태종때 제천현이 되었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제천지역은 한강의 지류들이 흐르

고 있어 사람살이의 역사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유구하여 회암 지대의 동굴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한다. 수운의 편리함으로 충북지역의 중심 노릇을 하던 청풍지역의 많은 문화재와 고건축들은 1985년 충주 다목적댐의 완공으로 물에 잠기게 되어 높직한 청풍면 물태리로 옮겨져 청풍문화재단지를 이루고 있다.

제천지역은 물론, 충북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현존하는 건축물의 수가 현저히 적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그리 빼어난 것이 적다.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삼국시대에 이 지방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삼국의 주요한 전쟁지역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과거로부터 삼국의 문화가 충돌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혼합문화(混合文化) 또는 서로 위상이 다른 다양한 문화상이 나타나는 변방문화(邊方文化)의 편린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고유한 건축문화는 좀더 서민적인 작은 규모에서 발견된다. 남한강 유역의 이른바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충주댐 공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수몰 위협에 처해짐으로써 현재는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민가들은 대부분 문화재 단지로 이전된 것들이지만 원택지(元宅地)에서 이건(移建)하였으므로 평면 형

\* 정회원, 세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강의교수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태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에 현존하는 민가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기때문에 6개 민가로 국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천시역 민가의 평면형태를 중부지역 민가 형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 지역 민가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민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주남철 교수<sup>1)</sup>는 민가라는 막연한 용어대신 상류, 중류 및 서민주택으로 나누었고, 윤장섭 교수<sup>2)</sup>는 민가를 농민층과 서민층의 주택으로, 김홍식 교수<sup>3)</sup>와 조성기 교수<sup>4)</sup>는 양반(사대부)의 주택을 제외한 민중들이 삶을 영위한 주택으로 민가를 정의하였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관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을 민가(Folk Houses)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관가를 제외한 일반 대중들의 집을 민가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대상은 조선 후기의 민가로 한정하였다. 그 이전의 민가는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지방의 현존 민가 수를 고려할 때에도 그 이전 민가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민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천시역에 현존하는 민가의 특성을 고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현존하는 민가의 실례를 통해 민가의 평면특성과 배치유형, 특히 안채와 바깥채의 구성 및 마당 공간의 구성 등의 변수를 중부지역 민가의 형식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조사 대상 민가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평면 배치특성, 안채와 바깥채 구성 등의 변수를 통해 중부형 민가와 비교하였다.

## 2. 조사 대상 민가의 평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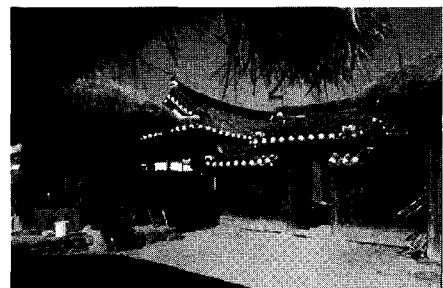
### 2.1. 양평리 최씨 가옥

양평리 최씨 가옥은 가령(家令)이 약 150년 이상의 고가(古家)로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부형 민가의 전형적인 가옥 배치법을 보여준다. 이 집은 '튼코자'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깥채의 구성이 일정한 규모 이상일 때 가능해지므로 중부형 민가에서는 하나의 완성형(完成型)이 된다. 즉, 바깥채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안채에 상응하는 '튼코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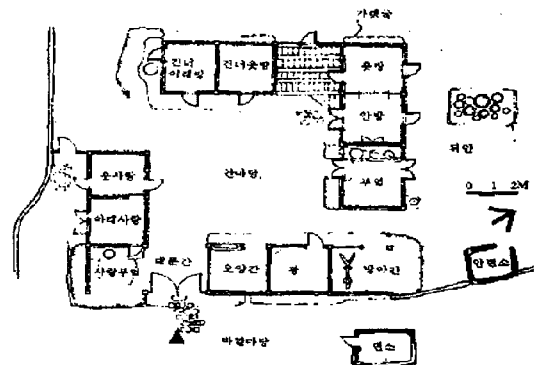
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안채의 구성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의 안방과 옷방은 그 사이벽이 미서기문으로 되어 있고, 마루로 향한 출입문이 옷방에 있는 것을 보면 마루의 오른쪽 전체를 안방계열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당에 면한 안방문은 창 의 역할도 겸하며, 마루에 면한 옷방문이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마루에 면한 안방과 옷방 사이의 기둥 상부에 성주향아리를 매달아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마루의 왼쪽에 위치한 건너방 계열은 옷방과 아랫방으로 나누어지는데, 마당쪽으로 방문과 쪽마루를 시설하고 마루쪽으로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자녀들의 방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난방은 건너방 계열을 통고래로 시설하였으므로 아궁이 위치를 측면으로 돌려 내었다.

바깥채의 구성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바깥마당쪽으로는 방앗간, 광, 외양간을 두고, 반대쪽으로 사랑방 계열의 공간을 두었다. 특히, 사랑 부엌을 대문간과 분리한 점과 사랑방을 민가의 정면을 피하고 머리를 돌려 배치한 것은 중부형 민가에서나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배치방법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모두 퇴가 없는 3량구조이며, 그래서 처마밑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까작을 여러 곳에 친 것이 관찰된다. 그 위치는 부엌의 마당쪽 공간을 나무간으로, 건너방 측면의 부엌, 사랑부엌 부분, 그리고 방앗간 부분의 처마밑 공간 등이 있다.



<그림 1> 최씨 가옥 안채 전경



<그림 2> 최씨 가옥 배치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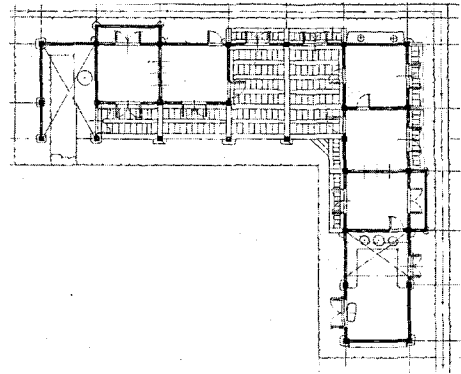
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p.73~75.  
 2) 윤장섭, 한국건축연구, 동명사, 1983, p.309.  
 3) 김홍식, 내가 본 한국의 민가, 건축문화, 1982.6, p.42.  
 4) 조성기, 한국민가연구서설, 대한건축학회지, 1980.3, p.45.

## 2.2. 월림리 정원태 가옥

정원태 가옥은 19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환경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으며 풍수지리상 전형적인 길지(吉地)에 자리한 양택(陽宅)이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배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각각 ㄱ자 모양으로 서로 맞물려 '튼ㄱ자'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랑채 날개가 짧아서 서쪽이 퇴어져 있다.

안채의 평면은 남도방식으로 작은 부엌, 안방, 옷방, 2칸대청, 골방을 일자(一字)로 배치하고, 꺾어져서 건너방과 부엌을 두어서 오히려 건너방을 중심으로 살림을 하도록 고려되었다. 이는 체천지방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문화적 충돌지로서 혼합문화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인 측면으로 발전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사랑채 역시 남도방식으로 부엌을 동쪽에 두고, 부엌방, 큰 사랑, 대청, 작은 사랑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원래 사랑채는 기와집이었으며, 안채는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그림 5> 정원태 가옥 안채 평면

가구구조는 안채의 경우 삼평주삼량(三平柱三梁, 긴보 삼량)이고, 사랑채는 일고주오량(一高柱五梁, 긴보 오량) 구조이며 기법은 전체적으로 고졸하게 처리해서 장식은 없지만 잘 짜여진 집이다. 안채 초가이영의 누수로 연목이 부식되고 벽체의 탈락 균열이 심하여 보수가 시급하며 사랑채의 초기 이영은 매년 잇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정원태 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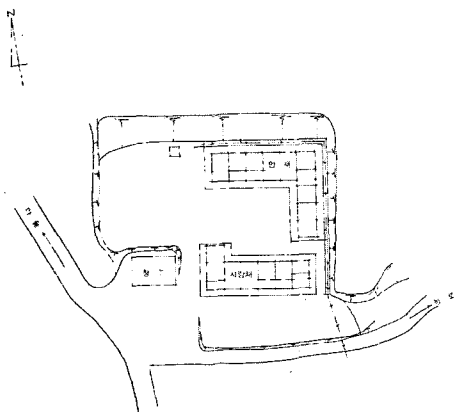
## 2.3. 구룡리 박도수 가옥

본 박도수 가옥의 경우도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배치 형태인 '튼ㄱ자'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다른 가옥이 안채와 사랑채, 두 개의 ㄱ자형 배치에 의해 '튼ㄱ자'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박도수 가옥은 ㄱ자형 안채 앞에 일자(一字)형의 문간채를 두고, 일자형 아래채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튼ㄱ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채에는 대청에 건너방 앞 뒷마루를 1단 높이고 투박한 난간조각을 설치한 것도 인상적이며, 우진각집 추녀 가구구조에 팔작지붕으로 기와잇기한 것도 특이하다. 안채에는 동치삼년(고종1년, 1864)이라는 상량문이 있고 문간채와 아래채는 20세기초에 지어진 초가지붕 구조의 건물이다.

남향한 ㄱ자형 안채 앞 넓은 마당의 중간에 대문채가 자리하여 안마당과 바깥마당을 양분하고 있으며, 안채의 동측으로 아래채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목부재 및 기와 등의 부식이 별로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아래채와 대문채는 본래 초가였으나 각각 슬레이트 및 양기와로 변형되어 있고 또한 상태가 심각하여 외관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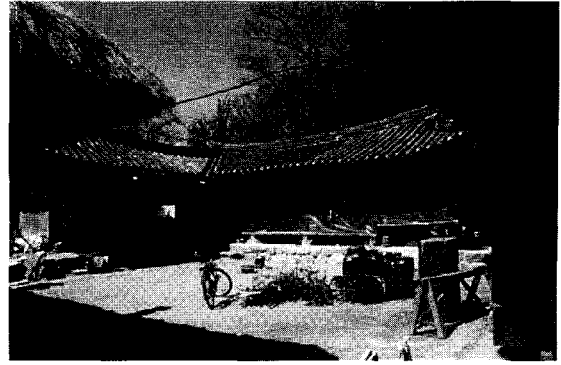
문간채의 기단은 정면에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었고, 배면에는 콘크리트 경계 블럭이 설치되어 있다. 기둥과 도리, 보 등의 부재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연목이 일부 부식되어 있다. 지붕은 시멘트 양기와가 변형되어 있으며 정면의 벽체는 회반죽 바름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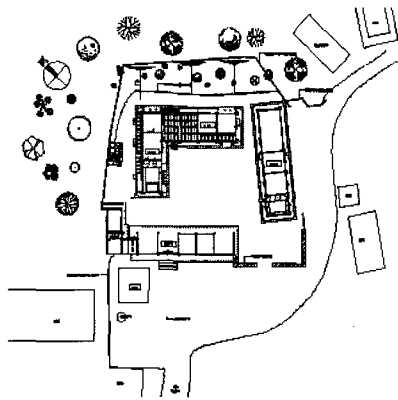
<그림 4> 정원태 가옥 배치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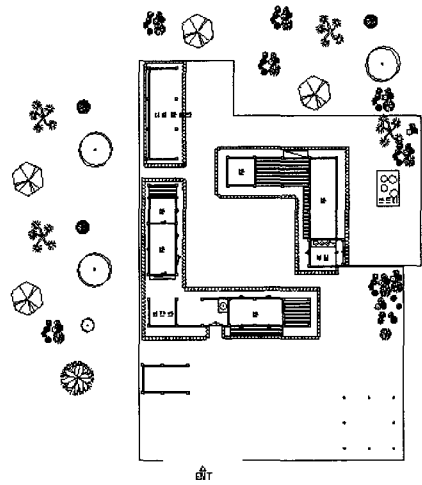
<그림 6> 박도수 가옥 안채 전경



<그림 8> 중전리 고가 안채 전경



<그림 7> 박도수 가옥 배치평면



<그림 9> 중전리 고가의 배치평면

## 24. 중전리 고가

중전리 고가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 모양의 안채와 ㄴ자 모양의 사랑채가 마주보는 ‘튼ㄱ자’구성을 하고 있다. 이 집은 19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농계층의 주택이다. 현재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우진각지붕을 올린 기와집인데 사랑채는 원래 초가였다고 한다. 두 채가 닿는 앞쪽 공간에 현재도 초가로 된 행랑채가 붙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사각기둥과 납도리를 사용한 맞걸이 3량가(三樑家)로 앞과 뒤에 퇴가 없다. 기단(基壇)은 자연석을 3층으로 포개어 쌓고 그 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올려 중심 주춧돌로 삼았다. 안채는 2칸 크기의 대청(大廳)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툇마루가 설치된 건너방을 두고 오른쪽은 ㄱ자로 꺾이면서 2칸 크기의 안방과 부엌을 두었다.

사랑채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안방, 윗방, 사랑방이 있고 왼쪽에는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서 꺾이면서 부엌, 아랫방, 윗방을 배치해 행랑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문간에는 안팎으로 담을 설치하여 밖에서 안마당이 직접 보이지 않으면서 꺾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한식주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대문을 통해서만 연결되도록 사랑방 옆에 담을 둘러 구분하고 편의를 위해 쪽문을 설치하였다. 담장을 따라 은행나무, 괴목 등을 심었고 안마당 중앙에는 화단이 꾸며져 있다.

## 25. 후산리 고가

후산리에서 유영선씨가 살던 집으로, 조선 말 민가의 목조기와집 형식을 보여 주는 가옥이다. 1985년 말 현재 위치한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전하였다.

후산리 고가의 구조형식은 앞에 툇마루를 둔 일고주오량(一高柱五樑)으로, 대청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동남형으로 배치한 ㄱ자집이다. 현재는 단독건물만이 남아 있지만 일반적인 예로 보아 안마당 앞에 사랑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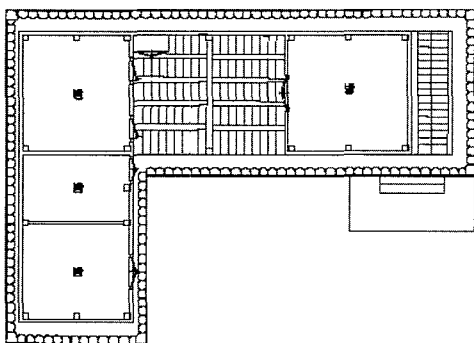
대청마루의 오른쪽은 2칸 크기의 건너방과 툇마루를 두었으나 높은 마루로 되어있다. 그 아래에 부뚜막을 두지 않고 방바닥 밑에 직접 불을 댈 수 있도록 만든 함실 아궁이를 두고 있다. 왼쪽은 안방과 잇대어 부엌이 있는데, 부엌과 맞닿은 안방 앞에는 작은 문을 달고 대청과 연결된 좁은 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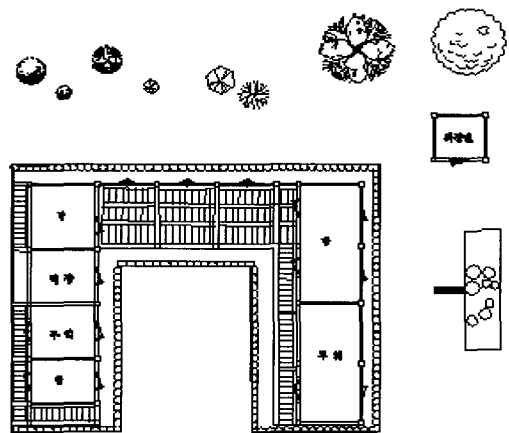
<그림 10> 후산리 고가 안채 전경



<그림 12> 도화리 고가 안채 전경



<그림 11> 후산리 고가 안채 평면



<그림 13> 도화리 고가 배치평면

특이한 것은 대청 가운데 놓인 대공으로서 긴 침차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종도리를 받도록 한 포대공(包臺工)을 설치한 점이다.

평면 구성은 중부지방의 보편적인 민가 유형을 따르지만 안방 뒤에 수장공간(收藏空間)인 옷방을 둔 점과 대청 한구석에 상제례(喪祭禮)를 위한 상청(喪廳)을 둔 점이 특이하다. 지붕은 건너방 쪽은 합각으로 처리하고 부엌쪽은 박공으로 처리하여 고식의 기법을 보여준다.

## 2.6. 도화리 고가

청풍면 도화리에서 김성기씨가 직접 살던 가옥이다. 조선시대 말에 지은 목조기와집으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을 피하기 위해 현위치인 청풍문화재단지 내로 이전하였다.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후면은 1단 낮은 냇돌 기단을, 전면은 5~6단의 높은 기단을 사용하였고, ㄷ자형 평면의 우진각지붕 구조이다. 앞쪽에 건물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바깥채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튼ㄷ자' 구성의 배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구성은 안방과 건너방을 대청 좌우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곽은자집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안방 부엌 앞에 광을, 건너방 앞에 각각 2칸씩의 부엌과 상방을 덧붙였다.



<그림 14> 도화리 고가의 코를

안방과 옷방 사이는 장지문을 설치해 틀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 사이를 벽으로 막아 버렸다. 이것은 오래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이다.

3칸의 대청과 2개의 부엌은 집 규모에 비해 넓은 편이며, 남서쪽 상방 앞에는 텃마루를 놓아 접객 공간으로 이용했다. 등근 통나무 굴뚝과 부엌 살창 옆의 코쿨<sup>5)</sup>은 태백산맥(太白山脈) 일대의 산간지대 민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설도 영동지방 민가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조선 말기 민가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옥이다.

### 3. 비교 분석

#### 3.1. 평면 배치특성

중부지방 민가의 평면 형태는 곱은자형의 안채와 이들의 모형적(模型的)인 마루없는 일자형(一字型)의 민가가 공존하고 있다. 홑집 계열의 민가에서 전면 3칸형과 4칸형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민가에서 대청마루가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칸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의 민가형태는 4칸형에서 그 지역 민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청이 있는 4칸형은 하나의 완성형으로 볼 수 있으며, 3칸형은 상대적으로 불완전(不完全)한 평면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형 민가는 안채와 바깥채, 두 개의 곱은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자형의 4칸 평면에서 주축(主軸)이 직교(直交)되는 2개의 축으로 분화된 형태이므로 전면 4칸의 완성형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된 평면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부형 민가의 구조는 대체로 홑집 계열에 속하는데, 사실 이러한 구조 특성때문에 안마당을 둘러싸게 되는 '튼□자' 구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표 1> 대상민가의 배치형태

가옥명칭	배치형태	안채평면구성	바깥채평면구성	비고
양평리	튼□자형	곱은자형	-자형	
월림리	튼□자형	곱은자형	곱은자형	
구룡리	튼□자형	곱은자형	-자형	
중전리	튼□자형	곱은자형	곱은자형	
후산리	튼□자(기준) 곱은자(현존)	곱은자형	-	바깥채 유실
도화리	튼□자(기준) ㄷ자형(현존)	ㄷ자형	-	바깥채 유실

이러한 중부형 민가의 기본적 배치형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본 대상 민가들의 평면 배치형태를 조사하였다. 평면 배치형태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6개 민가의 배치형태는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튼□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산리 민가와 도화리 민가의 경우에 현존하는 형태는 각각 곱은자형과 ㄷ자형의 안채만 남아있지만 각각 곱은자형과 일자형의 바깥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여러 문헌<sup>6)</sup>과 구전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 3.2. 안채와 바깥채의 구성

중부형 민가의 일반적인 배치형태인 '튼□자' 구성의 형태를 볼 때, 우리는 비슷한 모양의 안채와 바깥채가 마주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튼□자' 구성의 중부형 민가가 이러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선 곱은자형의 안채와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곱은자의 바깥채는 적어도 안채의 규모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화와 비례에 의한 합리적 배치의 마당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바깥채가 되려면 그 속에 담겨질 내용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부형 민가에서 곱은자형의 바깥채에는 농사용 공간이나 사랑방 계열의 온돌방이 일자형(一字型) 배치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대상 민가들의 室構成面을 살펴 보면, 안채의 실 구성은 안채 고유의 주거 편의성때문에 직교하는 두 축을 가르도록 대청마루를 배치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을 내단 평면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실은 대부분 1.0~2.0칸의 규모정도로 구획되어 있는데, 도화리 민가는 대청마루를 3.0칸으로 배치하여 곱은자형에서 변형한 ㄷ자형 평면을 갖도록 구성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4+4칸 규모의 평면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중전리 민가는 다른 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어서 대청을 중심으로 양편으로 방과 부엌을 추가한 3+3칸 평면으로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4+4칸 평면형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완전한 3+3칸 평면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중부형 평면의 '튼□자' 구성의 배치를 갖고 있다.

안채의 평면구성 및 각 실의 규모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의 평면구성 항목에서 '+'로 표기한 것은 곱은자형 배치를 구성하는 각 -자형의 결합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5)관술을 지퍼 어둠을 밝히거나 일종의 벽난로 시설로 사람의 코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코쿨이라고 지칭.

6)정삼철, 100년전 충북의 옛모습 : 제천시, 충북개발연구원부설 충북학연구소, 2000.  
차용걸 외 3인, 제천덕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원, 1999.

<표 2> 대상민가의 안채 平面構成 및 室規模

(단위 : 칸수)

가옥명칭	평면구성	부엌	안방	대청마루	웃방	건너방	총 칸수
양평리	방-방-대 +방-방-부	20	1.0	1.0	1.0	1.0	4+4
월림리	부-방-방-대 +방-방-방-부	20 +1.0	1.0	2.0	1.0	1.0	5+5
구룡리	방-방-대 +방-방-부	20	1.0	2.0	1.0	1.0	4+4
중전리	방-대 +방-부	1.0	2.0	2.0	X	1.0	3+3
후산리	방-대 +방-부-방	1.0	2.0	2.0	1.0	2.0	4+4
도화리	방-부-방-방 +대-방-부	20 +1.0	2.0	3.0	1.0	1.0	4+3+4

· 방-방, 대-대청마루, 부-부엌

바깥채의 室構成은 주로 가사와 농사에 필요한 실을 계획하였는데, 광, 헛간, 외양간, 방앗간 등이거나 사랑방과 사랑마루, 부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두 계열의 공간이 하나의 바깥채를 구성하는 것도 중부형 민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대상 민가들도 중부형 민가의 특징을 잘 따르고 있었다. 바깥채에는 대부분 대문간을 두고 있는데, 중부형 민가의 대문간을 통한 진입방향은 안채의 대청마루쪽과 부엌쪽으로 진입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청방향의 진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상 민가들의 경우도 이러한 중부형 민가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후산리와 도화리 민가의 경우를 추측하여 볼 때, 모든 민가의 경우 대청방향으로 진입하도록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대상민가의 바깥채 平面構成 및 室規模

(단위 : 칸수)

가옥명칭	양평리	월림리	구룡리	중전리
평면구성	방-방-부 +오-광-방아	방-마-방-부	광-문-방-마-오 +부-방-광-방	마-방-방 +오-문-방-마
대문간	1.0	1.0	1.0	1.0
사랑방	1.0	2.0	2.0	2.0
사랑마루	X	2.0	1.0	1.0
부엌	1.0	1.0	1.0	X
외양간	1.0	X	1.0	1.0
광	1.0	2.0	1.0	1.0
방앗간	1.0	X	X	3.0
총 칸수	4+3	5+3	5+5	4+4
비고	마루 없음	독립창고 외양간 없음	부엌 없음	부엌 없음 3칸의 방앗간

· 마-사랑마루, 부-부엌, 오-외양간, 문-대문간, 방아-방앗간

특이한 점으로는 양평리 민가의 경우는 바깥채에 마루를 두지 않은 것과 월림리 민가의 경우는 독립적인 창고를 두고 외양간을 두지 않은 점이다. 또한 중전리 민가의 경우는 바깥채에 부엌을 두지 않은 것과 3칸의 방앗간을 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대상 민가의 바깥채 평면구성과 각 실의 규모를 정리하였다. <표 3>의 평면구성 항목에서 '+'로 표기한 것은 곱은자형 배치를 구성하는 각 一자형의 결합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 3.3. 비교분석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제천시지역 민가의 평면 배치특성과 안채와 바깥채 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천시지역은 중부형 민가의 특성인 4間型의 평면 구성과 '튼口자' 구성의 배치를 잘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천시지역의 현존하는 민가의 수가 매우 적고 조사 대상으로 정한 6개 민가의 형식만으로 이러한 결론을 유추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제천시지역 민가의 평면형태를 고찰함으로써 이 지역 민가 특성을 파악하는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설정한 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고찰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부형 민가가 '튼口자형' 배치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바깥채의 규모가 안채의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한데 제천시지역은 이러한 배경을 갖추었으며, 따라서 조사대상 민가가 모두 '튼口자' 구성의 배치를 잘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부형 민가의 완결적 평면구성인 4間型 평면은 중전리 민가를 제외한 조사대상 민가 모두 4間型 '튼口자'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중전리 민가의 경우만 예외적인 것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배경 등의 이유로 불완전한 3+3칸 형태의 평면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지역은 예로부터 삼국의 문화와 전선(戰線)이 만나는 곳으로서 혼합문화(混合文化) 및 변방문화(邊方文化)의 편린이 조사되었다. 월림리 정원대 가옥의 경우 안채 평면은 남도방식으로 작은 부엌, 안방, 웃방, 2칸 대청, 골방을 一자로 배치하고, 꺾어져서 건너방과 부엌을 두어 건너방 중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전리 민가에서 안채와 바깥채는 모두 사각기둥과 납도리를 사용한 맞걸이 3梁 방식을 사용하고 앞과 뒤에 퇴를 배치하지 않은 점 또한 문화적 충돌로 해석된다. 도화리 민가에서는 중앙 대청마루를 제외하면 4+4칸의 전형적 중부형 민가로 보이지만, 중앙에 3칸 규모의 대청마루를 배치하여 ㄷ자형 평면을 보이고 있다. 이것 또한 남도 영향의 문화적 충돌로 해석된다.

##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제천시지역 민가의 평면 배치특성과 안채와 바깥채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천시지역은 중부형 민가의 특성인 4間型의 평면 구성과 '튼ㄱ자' 구성의 배치를 잘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마당공간의 특성 부분과 보다 세밀한 유형별 구분을 통한 실내공간의 특성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이 지역 민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천시지역 조사대상 민가는 모두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배치형태인 '튼ㄱ자' 구성의 배치를 잘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중부형 민가의 완결적 평면구성인 4間型 평면은 중전리 민가를 제외한 조사대상 민가 모두 4間型 '튼ㄱ자'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 3) 대문간을 통한 안채로의 진입방향은 주로 대청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부형 민가의 진입형태인데, 대상 민가 모두에서 대청방향 진입형태가 조사되었다.
- 4) 제천시지역 민가들은 전형적인 중부형 민가의 평면 유형을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혼합문화(混合文化) 및 변방문화(邊方文化)의 편린이 나타났다.
- 5) 본 연구에서 누락된 마당공간의 특성 부분과 보다 세밀한 유형별 구분을 통한 이 지역 민가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신영훈, 한옥의 고향, 대원사, 2000.
2. 김봉렬, 한국의 건축, 공간사, 1994.
3.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4.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87.
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 한국 전통민가의 원형 연구, 열화당, 1983.
6. 나중현, 解放以前에 지어진 京畿道 地域의 農村住居에 대한 調査 研究 / 平面形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7. 한지만·이상해,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7n9, 2001.09.
8.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10주년기념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06.
9. 정연상·이상해, 경기도 전통민가 안채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1 n.1, 2001.04.
10. 유지아·박언곤, 한강 남·북지역의 현존 민가 평면형식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0 n.1, 2000.04.
11.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7, n.3, 1991.06.
12. 구재오·이경희, 전통민가의 지역별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8, n.2, 1988.10.

<접수 : 2002. 4. 30>